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일반전형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정시모집]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I

안 내 학 생 부 종 합 전 형 서 울 대 학 교



학년도



이 책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I.

미래의 서울대 학생에게

- 서울대학교는 이런 학생을 기다립니다 _ p.02
-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을 안내해드립니다 _ p.03

II.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 학생부종합전형이란 무엇인가요 _ p.04
- 학생부종합전형이 왜 필요한가요 _ p.04

III.

학생부종합전형 학생 선발

- 서류평가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_ p.06
- 면접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_ p.11

IV.

행복한 학생, 건강한 학교

- 학생들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_ p.14
- 학교는 이렇게 도와주세요 _ p.20
- 입학서류 작성은 이렇게 하세요 _ p.22

V.

선배들이 들려주는 ‘나의 이야기’

- 2019학년도 면접 우수자 인터뷰 _ p.31
- 2019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우수 학생 수기 _ p.39

VI.

미래의 인재를 기다리며

- 서울대학교는 학교 안에서 성장해온 학생들을 기다립니다 _ p.49

-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묻습니다 _ p.50
- 아로리 사용 설명서 _ p.56

서울대학교는 이런 학생을 기다립니다

‘세계사적 소명을 실천하는 창의적 지식 공동체’

이는 서울대학교가 추구하는 현재와 미래의 모습입니다.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은 미래를 개척하고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인재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학업능력이 우수한 학생
- 학교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
-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학생
-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지닌 학생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학생

서울대학교는 우수한 학업능력과 적극적인 학업태도를 지닌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리더’나 ‘진취성’이란 단어가 다소 거창하여 구체적인 개념이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는 멀리 있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미 완성된 인재를 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차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은 단순히 수능 또는 내신 점수만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서울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을 정량화된 수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파악합니다.

여러분이 서울대학교가 원하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면 먼저 각자의 자리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평가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 사회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지 꿈을 가져 보십시오. 학생부종합전형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현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서울대학교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을 안내해드립니다

서울대학교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창의적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모든 전형은 우수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각 전형마다 고유한 특색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가 2020학년도에 실시하는 전형입니다.

수시모집	정시모집
· 학생부종합전형(지역균형선발전형) · 학생부종합전형(일반전형) ·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 ·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I)

위 전형 가운데 정시모집 일반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 즉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일반전형,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정시모집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I 는 학생부종합전형입니다.

각 전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전형	전형 소개	전형 요소*
수시	지역균형 선발전형	다양한 지역적, 사회·경제적 배경 하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잠재력 있는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서류평가, 면접
	일반전형	학업능력이 우수하고, 모집단위와 관련된 분야에 재능이나 열정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는 학생의 열정과 재능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모집단위 특성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합니다.	서류평가, 면접 및 구술고사
	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 I (정원 외 전형)	다른 학생들에 비해 지역적, 경제적,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인 자세와 열정, 도전 정신을 통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수한 성취를 이룬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으로 저소득 가구 학생과 농어촌 지역 학생,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지원하는 농생명계열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전형입니다.	서류평가, 면접
정시	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 II (정원 외 전형)	장애로 인한 어려움으로 학업을 수행하는 데 대학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북한이탈주민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서류평가, 면접

* 모집단위에 따라 실기평가 또는 적성·인성면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란 무엇인가요

학생들의 가능성과 자질은 사람들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정형화된 공식과 기계적인 수치는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모두 보여주지 못합니다. 학생이 속한 환경과 학업 동기, 학업에 대한 의지, 열정, 노력과 같은 요소들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한 종합적인 평가 제도가 바로 학생부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수치로 계산된 성적만을 반영하지 않고,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능력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 정신,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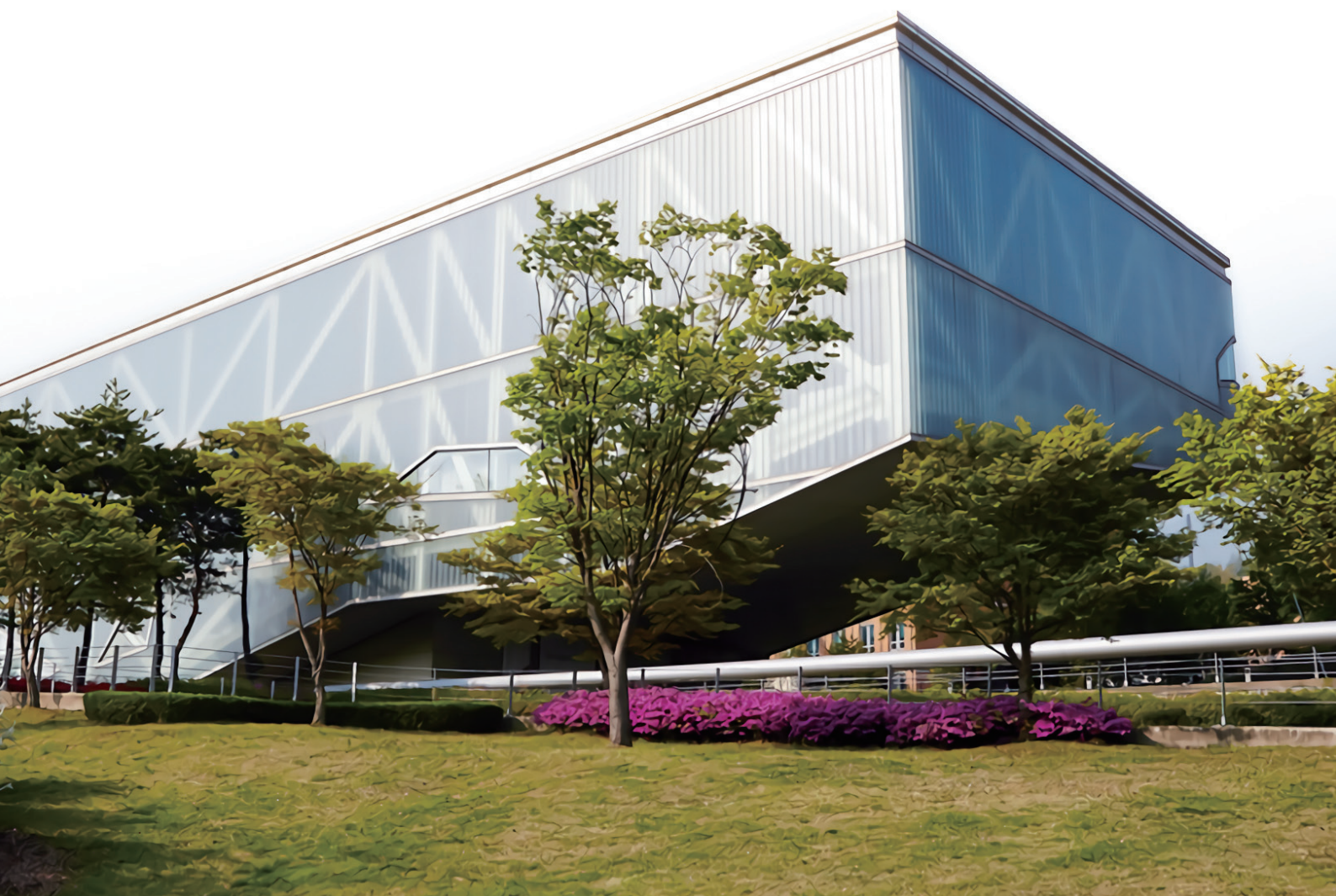
서울대학교는 지난 2000년부터 현재와 같은 종합평가 방식을 준비하여 2002학년도부터 점진적으로 학생의 학업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전문적인 평가체계와 평가인력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고, 최근 3년 동안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모집인원의 75% 이상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왜 필요한가요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종합평가 방식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이 수능과 내신 위주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발전 가능성을 계발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바람직한 교육시스템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점수 위주의 선발 방식에서는 매우 미미한 점수 차에 의해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이 같은 방식은 간단하고 편리한 선발 방법이지만 4차 산업혁명 융복합 시대의 대학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선발에 부응하는 적절한 방식인지는 의문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의 학업능력과 발전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하기 위해 수치의 단순한 합산을 넘어서는 평가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등 제출서류에 기반한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과 성적, 교내외 활동의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까지 다면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적인 평가 방식의 가장 큰 의의는 각각의 점수를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학생들의 학업능력과 잠재력을 더욱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교육 안에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서류평가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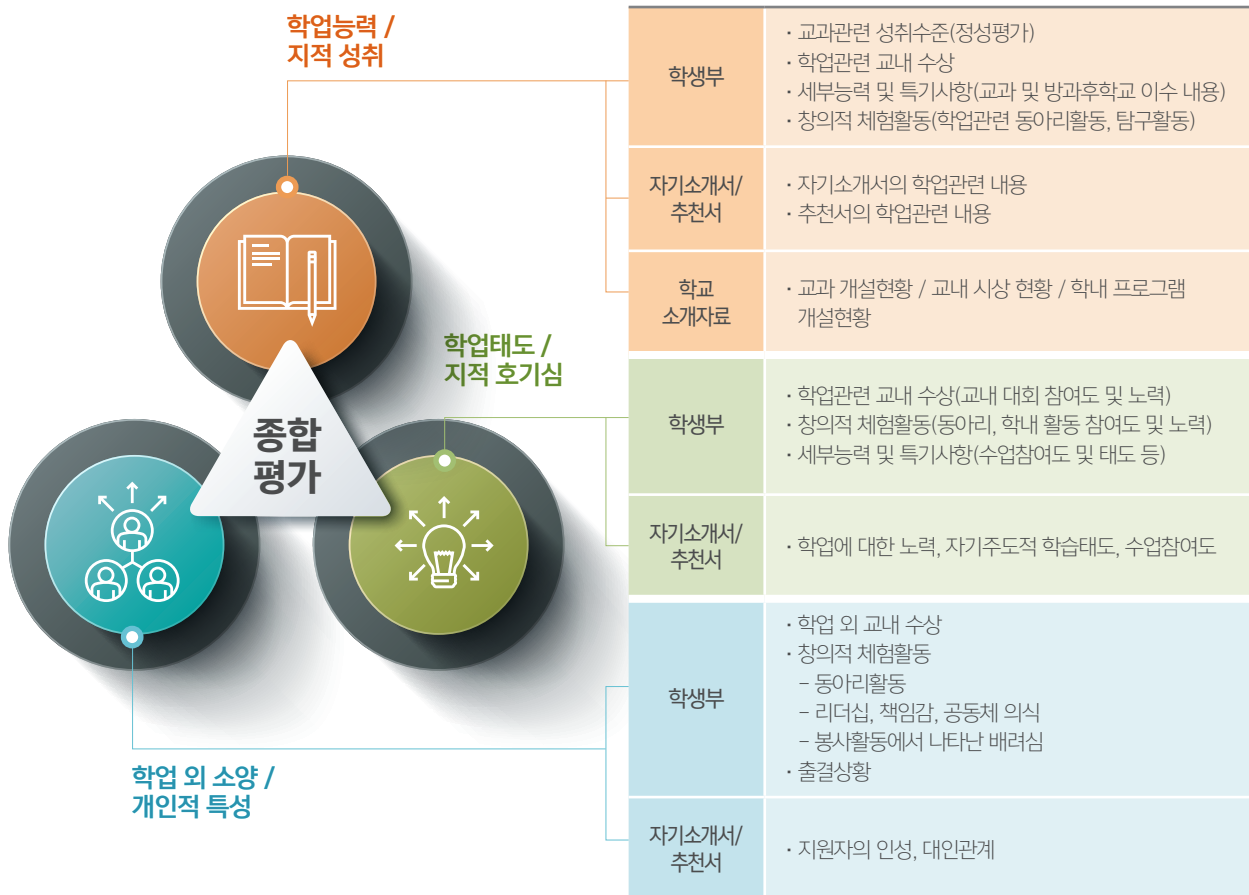
서류평가란 무엇인가요

서류평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첫 번째 단계이며 여러분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는 서류평가와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수시모집 일반전형과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에서는 서류평가 결과가 우수한 학생들을 1차 선발하여 면접 또는 면접 및 구술고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학생이 제출한 서류는 복수의 입학사정관이 여러 단계의 평가, 협의, 검토를 거쳐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에는 현재 26명의 전임입학사정관과 각 대학의 교수님들로 구성된 약 110명의 위촉입학사정관이 선발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평가 단계별로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므로 개인의 주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나요



입학사정관은 서류평가 과정에서 학생의 학업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업태도,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창의적 인
재로 발전할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이때, 한 종류의 서류나 항목만으로 학생을 평가하지 않으며 제출된 학교생활기록부
와 자기소개서, 추천서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적극적인 학업태도를 갖춘 학생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수업 참여도와 수업 선택
내역, 교내 프로그램 참여 현황, 학업 관련 학내 활동 참여 노력,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에 드러난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
한 노력 등 제출서류에서 드러나는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의 서류별 반영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특정 부분만을 평
가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성취도, 교내 수상,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
험활동 등 기재된 모든 내용을 평가 대상으로 합니다.

■ 각 요소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 학업능력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지원자의 학업능력, 학업태도, 학업 외 소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만, 학생 선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우수한 학업능력**입니다.

학생의 학업능력은 반드시 교과 성적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교과 성적이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
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학업능력은 교과 공부뿐 아니라 교내 탐구활동, 교내 경시대회, 독서활동, 방과후학교, 동아
리활동 등을 통해서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소개자료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을 포함한 학교 특색 교육 프로그램 내용, 교내 대회, 재학
생 수 등 고등학교의 교육 환경을 먼저 파악합니다. 그 후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
적 체험활동 상황(학업 관련 활동), 학업 관련 탐구활동,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통해
서 학생의 학업능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교과성취도]

교과 성적 지표는 학생의 학업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많은 자료 중 하나입니다. 교과성취도를 파악할 때에는 교과 성적을 공식
으로 수치화하여 기계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이한 교육 환경과 교육과정에서 얻은 성취를 단순히 수치상으로 비교할 경
우, 교과성취도는 지원자의 학업능력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량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학년별/과목별 반영 비율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 교과목의 **3년간의 성취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수강자가 400명인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은 성적과 수강자가 14명인 과목에서 3등급을 받은 성적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평가방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의 교과 성적 분포, 수강자 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학년별 성적 변화, 선택 과목 특성 등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 수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정보를 정성적으로 해석하여 더욱 정
확하게 학업능력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학년	학기	과목	이수단위	등급	인원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1	1	000	3	1	400	98	71.2	15.4
2	2	000	2	3	14	94	89.2	4.6
3	1	000	2	우수	-	-	-	-

교과 성적을 평가할 때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선택 상황을 고려합니다.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하여 수차상 결과가 다소 나쁠 수 있지만 학생의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도전하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더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나 소수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서류평가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교내수상]

교내 경시대회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취를 거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내 경시대회는 아래 표와 같이 학교마다 상이하기에 시상이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수상의 양이 아니라 참가 대상, 수상 인원 등을 파악하고 교육 환경 안에서 수상의 의미를 판단합니다.

학교	수상명	참가 대상	수상 인원
A	우수상	2학년 자연계열	대상(3명), 최우수상(5명), 우수상(7명), 장려상(10명)
B	우수상	전 학년 대상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4명)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의 교과별 학습활동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재된 교재나 수업 내용(토론, 발표, 실험 등), 그 안에서 보인 학생의 노력, 과제 수행 내용 등을 통해 학생이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과 수준을 파악하여, 단순히 교과 성적 수치로 볼 수 없는 학생의 역량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과학 교과 이론 수업에서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여겨지던 학생이 실험 수업에서 실험 설계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의 우수성이 드러나는 경우, 수학 교과 중에서 유독 통계 부분에 강점을 보이는 경우 등 수치화된 성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생의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에서 학생의 학업 관련 우수성이 드러난다면 평가에 고려합니다. 또한 독서활동, 탐구활동 등의 학내 활동을 통해서도 우수성을 볼 수 있습니다.

동아리에서 '농구반'보다 '심화수학반'이 의미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 학업 외적인 부분에서 충실히 활동했다면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학업 외 소양 부분에서 그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탐구활동 경험의 유무로 학생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탐구활동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주어진 여건 내에서 자신의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내용을 평가합니다.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과 성적 지표와 교내 경시대회 수상내역, 동아리활동 등이 결과 위주로 기술되어 있다면,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결과'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과정'에서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천문 관련 동아리에서 활동한 학생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동아리활동 시간과 활동 내용 등 결과적인 부분이 기술되어 있다면, 자기소개서에서는 천문동아리에 참여하게 된 동기나 동아리 참여 전과 후의 자신의 학업능력과 관련하여 변화된 부분을 기술할 수 있고, 입학사정관은 이 부분에서 학생의 호기심과 학업 역량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학업태도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지적 호기심, 학업에 대한 열정, 적극성 및 진취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이 같은 특성은 교과학습뿐 아니라 관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독서활동, 글쓰기, 탐구활동, 실험 수업, 교내 대회 참여 등 다양한 학습 경험에서 드러납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학업 관련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등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학업태도를 보여 왔는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교내 경시대회에서 지원자가 자신의 역량 함양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전했던 내용이 보인다면 지원자의 학업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학업 외 소양

서울대학교는 학교생활에 나타난 지원자의 성품뿐 아니라 **리더십, 공동체 의식, 책임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여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업 이외의 교내 수상,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봉사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리고 제출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통해 학생의 대인관계 및 인성 등 개인적 특성을 판단합니다. 이때 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경험의 유무나 활동의 양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임원 활동 경력이 많은 학생이 리더십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임원 활동의 횟수보다 맡은 역할과 활동 내용을 질적으로 판단하며, 봉사활동 역시 봉사활동의 양이 아닌 활동 내용과 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Ⅰ 다수에 의한 다단계 평가가 무엇인가요

학생부종합전형의 종합평가 방식은 학생의 우수한 역량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서울대학교에서는 한 명의 지원자를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평가자에 의한 다단계평가’ 시스템 운영

서울대학교는 충분한 준비과정을 통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다수의 평가자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평가하고 협의하는 방식으로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평가자가 전형 준비에서부터 최종 합격자 선발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평가, 논의,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각 단계별로 서로 다른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주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서류평가에는 전임입학사정관과 각 단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위촉입학사정관이 참여하며, 5단계의 평가과정을 거칩니다.

Step 0

준비단계



전임입학사정관은 평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매년 많은 준비과정을 거칩니다. 입학사정관 개인의 주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장기간의 교육과 사전 모의평가를 통해 서류평가를 준비합니다. 또한 고등학생들의 학업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세미나, 데이터 분석, 교사 간담회, 교육전문가와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 처한 학생들의 우수성 지표를 파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모색합니다.

Ste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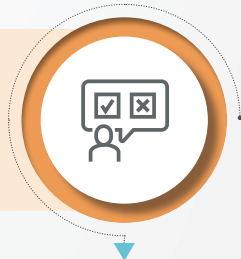
전임입학사정관 1단계 평가



전임입학사정관이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능력, 학업태도, 학업 외 소양 등을 중심으로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자에 대한 평가 의견, 면접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Step 2

전임입학사정관 2단계 평가



동일한 지원자에 대해 다른 전임입학사정관이 1단계 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단계 평가자는 1단계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인 평가를 진행합니다.

Ste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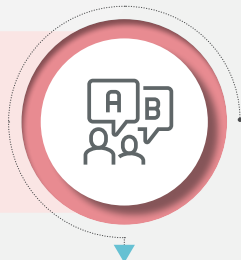
1, 2단계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조정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한 1단계 평가 결과와 2단계 평가 결과를 비교하고 검토합니다. 동일한 지원자에 대해 1, 2단계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 상이한 경우, 대학입학전형운영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Step 4

위촉입학사정관 평가



각 모집단위의 교수님들로 구성된 위촉입학사정관이 해당 모집단위에 적합한 인재인지 평가합니다. 한 명의 지원자에 대해 2인 이상의 위촉입학사정관이 평가하며, 1, 2단계 평가를 담당한 전임입학사정관과 평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면서 최종 서류평가 결과를 도출합니다.

Step 5

최종 평가



입학본부와 각 단과대학별 평가 책임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결정합니다. 동일한 지원자에 대해 1~4단계 평가 결과가 상이한 경우, 대학 입학전형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면접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면접은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면접과 제시문을 활용하여 물음에 답하는 면접, 두 가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과 정시모집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I 지원자 모두와 수시모집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의 면접 대상자는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에 응시하게 됩니다. 서류 기반 면접은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복수의 면접위원이 지원자의 서류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지원자가 이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을 통해서 **서류내용**과 **기본적인 학업소양** 등을 확인합니다.

●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 동안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생의 경험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이므로 면접을 위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답변하는 기술과 태도를 측정하는 면접이 아니므로 말투나 태도를 단기간 연습하기보다는 평소에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여 깊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담겨있는 본인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되짚어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면접 대비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10분 내외**로 면접위원 앞에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하므로 평소 학교에서 토론이나 발표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앞에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는 연습이 면접 당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시문 활용 면접

수시모집 일반전형의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는 제시문을 활용한 면접 문항이 사용됩니다. 일반전형 1단계 합격자들에게 제시문과 그에 따른 문항이 제공되고 모집단위별 30분/45분 동안 답변을 준비합니다.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의 문항은 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출제됩니다. 2020학년도 입학전형 안내를 통해 모집단위(단과대학, 학부, 학과 등)별로 평가되는 분야나 과목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모집단위별로 안내된 분야의 제시문과 문항을 활용하여 지원자의 전공적성과 학업능력을 평가합니다.

● 예시1

인문대학	·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	--

인문대학의 경우 일반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인문학 분야, 사회과학 분야 제시문이 각각 제공됩니다. 출제되는 제시문에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또는 한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30분 내외의 답변 준비시간**에 주어진 두 분야의 제시문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합니다. **면접시간은 15분 내외로**, 문항에 대한 답변과 이어지는 관련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됩니다. 면접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정답 여부보다는 답변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사고력, 논리력** 등이며 **전반적인 학업소양**에 중점을 두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예시2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 화학,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	--

같은 단과대학 내에서도 세부 학과/학부에 따라 출제되는 내용과 분야가 다르므로 모집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과학대학의 식품영양학과는 화학과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이 각각 주어집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며 고등학교 과학 교과 중 과학Ⅱ 수준까지의 범위에서 출제됩니다. **45분 내외의 답변 준비시간**에 두 분야의 제시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준비한 뒤, **15분 내외 동안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위원들은 정답 여부보다는 지원자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 지식, 깊이, 사고력, 응용력** 등을 평가하며 **모집단위에서 필요한 소양**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원자들은 바로 답변하지 못 하거나, 정답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동안 공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답변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한 학습 경험을 통해 학업 역량을 길러온 학생들의 학업소양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각 교과목 수업을 통해서 해당 과목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소화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학습 과정 속에서 관련 도서도 찾아 읽고, 토론, 탐구, 과제 등 학습활동을 하면서 더욱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면접 및 구술고사는 다소 깊이 있는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제시문을 활용하기 때문에 평소에 독서활동을 성실히 하면 도움이 됩니다. 단기간의 면접 및 구술고사 준비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독서와 각 교과목의 깊이 있는 이해**가 바탕이 될 때 자신의 우수한 학업소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 분야 면접 및 구술고사의 경우도 각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단순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다뤄보거나 관련 이론 등에 대한 이해와 응용 연습**을 해 보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깊은 생각이 필요한 문제를 만들어 친구들과 토론 학습을 해 보는 경험, 자연과학 이론이나 관심 주제에 대해 질문을 만들어 고등학생 수준에서 과제를 해결해보고 발표하는 활동 등도 각 교과목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 본인의 학업소양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미래 서울대 학생 여러분! 그럼 서류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고등학교 생활은 대학교 입학만을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사회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거듭날 미래의 '나'를 위한 아주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3년은 내 인생에서 없는 기간이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시간이 무척 소중한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3년의 시간, 내가 만드는 미래의 '나'를 위해서 어떤 노력, 어떤 활동, 어떤 공부로 채워나가야 할까요?

도전하는 학생

- 고등학교 생활 중 스스로 도전해 본 경험은 무엇인가요?
- 여러분이 생활해온 공간은 학교, 그리고 그 안의 교실입니다.
- 교실에서 여러분은 어떤 도전에 부딪히게 될까요?

교과 내용을 나만의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자

교실에서의 수업, 교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 것으로 소화했나요?

내가 선생님이 되어 친구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내용을 이해했나요?

문제풀이 요령보다 내용 이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를 **충분히,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눈앞의 점수 올리기라는 쉬운 길보다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교실에서의 수업에 도전하세요. 단답형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수준, 오지선다형 시험에 대비하는 수준을 넘어서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을 나의 언어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즐겨보세요. 필요하다면 관련 책을 찾아보고 이전에 다뤘던 교과 내용도 참 고해 보며 스스로 사고의 폭을 넓혀보는 연습으로 충실하게 지식을 쌓아가세요.

내게 중요한 과목, 진로에 맞는 과목에 더 노력해야 할까요?

고등학교 때 진로계획을 세워 꿈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차 다양한 경험과 계기로 여러분의 진로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과는 대학생활을 넘어 사회생활에 기초가 되는 교양의 밑거름이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지식이나 학문을 지나치게 편식하는 것은 지적 균형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한 과학자! 자연과학적 지식이 풍부한 인문사회학자! 철학과 과학을 아우르는 예술가!

여러분의 멋진 미래입니다.

● 선택의 기회에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하자

학교마다 교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되고 있습니다. 학생의 선택에 따라서 교과목이 개설되기도 하고 폐강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인문사회과정, 자연이공과정 등으로 구분되어 교과목이 제한적으로 개설되기도 합니다. 반면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폭이 넓은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선택’, 때로는 이것이 하나의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화학이 좋은데... 화학Ⅱ를 듣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서 화학Ⅱ 희망자가 겨우 30명뿐이라고?
생물Ⅱ는 150명이 듣는데?’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서울대학교 지원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등급의 불리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입학사정관은 교과 등급만으로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은 소수 인원이 수강하는 과목이라면 많은 인원이 이수하는 과목에 비하여 등급 수치가 우수하게 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과목, 나의 현재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과목에 도전하는 자세는 우수한 학업능력을 갖추게 되는 토대가 됩니다. 현재의 나보다 발전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라면 **어려운 과목, 소수 인원 수강 과목**에도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여 나에게 필요한 역량을 쌓아** 봅시다.

● 선생님들의 진심과 노고가 깃들여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여러분은 ‘세계사적 소명을 실천하는 창익적 지식 공동체’인 서울대학교의 주인공이 되실 분들입니다.

창익적 지식 공동체를 여여가기 위한 서울대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알아보고, 배운 지식을 활용해 보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내용 암기와 문제풀이 연습만으로는 여러분의 지식을 확장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학업활동에는 정해진 틀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나 종류의 활동이라도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 수업과 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활동을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규 수업 안에서** 선생님과 함께 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모두 의미 있는 배움**이며,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발표 수업, 토론 수업, 실험 수업 등 교실에서의 수업 방식이 다채로워졌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교실 수업에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경험하면서 흥미로운 분야를 발견하고, 나의 학업 역량을 더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 봅시다. 수업시간에 발표, 토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찾고 연습하는 등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실험·실습 수업에도 충실히 참여합시다. 교과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탐구 경험을 통해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의 적성과 흥미도 발견하게 되고, 지적 성장의 뿌듯함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교과 담임선생님들께서 과제를 많이 내 주신다고요? 각 교과 선생님들이 마치 한 학기에 한 과목만 배우고 있는 것처럼 수행 평가 과제를 주신다고요? 수능 시험 공부도 벅찬데 주제탐구 보고서를 써야 한다고요?

미래 서울대 학생 여러분! 도전의 기회, 적극적인 학교생활, 더욱 알차고 의미 있는 공부의 기회입니다. 놓치지 말아야겠지요? 여러분이 교과수업에서 보여주는 노력들은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이 되고, 입학사정관은 이곳에 기록 된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수업 활동을 파악하고 역량을 키워온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 넓고 깊게 공부하고자 노력하는 학생

- 수업을 열심히 듣고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었나요?
- 교과수업 내용 이외에 궁금한 점에 대해 찾아본 경험이 있나요?
- 교과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노력이야말로 서울대학교에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 훈련 과정입니다.
-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은 이런 자기주도적인 학습 노력을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 교과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더 넓고 깊게 공부하자

학문의 세계는 끝이 없다고 합니다. 공부하다 보면 교과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찾아보고 싶은 분야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스스로 찾아서 공부**할 때입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라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나의 실력과 역량을 한층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서적을 찾아서 읽고, 이해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비 학자로서의 면모가 갖춰지지 않을까요?

이외에도 학교에서는 탐구활동, 모둠 수행 과제, 토론회활동, 글쓰기 등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양한 소양과 학업에 대한 열정,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연마할 수 있는 다양한 교내 대회와 행사도 있습니다. 교내 대회 참여 종류나 횟수, 수상 등급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상 기회를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소양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다양한 교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서로의 땀과 열정을 나누다보면 여러분의 성장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얼마나 제공하느냐 여부는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평가요소가 아닙니다.** 학교마다 제공하는 활동 기회는 여건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업활동에 참여한 활동의 종류나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가 평가하는 것은 학생들 개개인이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를 얼마큼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력해왔는지, 어떤 동기와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였으며 그로부터 교육적으로 얼마큼의 성장을 이루었는지입니다.

● 예비 서울대 학생이라면 독서는 기본입니다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며, 대학생활의 기본 소양입니다. 어디서 책을 찾을까요? 수업 안에서도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과와 관련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철학, 공학 분야 도서를 수업 활동 중 선생님이 추천해 주실 수도 있고 토론활동, 주제탐구 활동에도 관련 도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미 학교생활에서 도서를 선정하는 계기를 많이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전문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호기심으로 책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생긴 궁금증으로 또 다른 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야의 책이든지 읽고 또 읽어가는 사이에 생각하는 힘, 글쓰기 능력, 전문지식, 의사소통 능력, 교양이 쌓여갈 것입니다. 타의에 의한 수박 겉핥기식 독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책들 가운데 그 책이 나에게 왜 의미가 있었는지, 읽고 나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생각하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워온 큰 사람**을 기다립니다.

●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의 학교에는 여러분을 안내하고 이끌어 줄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 친구들과 모둠활동을 하는데 방향을 잡기 어려워요.
- 우리끼리 해결해가는 방법이 좀 미숙한 듯한데, 전문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이 분야와 관련한 책 좀 소개해 주세요. 더 알아보고 싶어요.
- 이 분야와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토론활동을 지켜봐 주세요. 저희 생각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희 논술 동아리 글쓰기 작품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선생님, 저희 이런 프로젝트 하게 해주세요.
- 과학 실험 동아리 만들었는데 지도 부탁드립니다.

학교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배움을 통한 성장을 위해 펼쳐진 마당입니다. 이곳에서 마음껏 공부하십시오. 공부의 재미와 맛에 푹 빠져봅시다. 아직 그런 맛을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선생님과 상의해보세요. 선생님들께 계속해서 묻고 도움을 청하고 때로는 귀찮아하실 때까지 매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선생님과 함께 열정을 다해 공부해 온 여러분**을 서울대학교가 기다립니다.

■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학생

‘인성’이란 ‘사람의 성품’이라는 뜻 외에도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생활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여러분의 소양은 학업활동 이외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도 다져집니다. 세계 속의 리더로 성장해가는 예비 서울대 학생 여러분이라면, **열정을 담은 학교생활 속에서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 학교생활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알아보고 참여하세요

고등학교 생활은 무엇보다도 학업활동이 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과정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폭넓고, 사려 깊은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학업 외에도 고등학교 생활을 다채롭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운동, 예술, 사회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을 보이는 여러분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때에 그 열정도 함께 가지고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몇 가지 활동을 해야 할까요? 예술 활동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활동의 종류나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서울대학교 입학에 특별히 유리한 학업 외 활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학업에 열정을 쏟으면서도 조금 더 폭 넓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활동이든지 협동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 배려심, 대인관계, 사회성을 익히고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조화로운 교우관계를 맺어가며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보여주기 식의 활동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실에서, 학교에서, 지역에서 내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봉사활동의 경우도 가까운 친구, 가까운 곳에서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부터 찾아 실천해 봅시다. 처음부터 진심에서 우러나 실천한 활동도 의미가 있지만, 별 생각 없이 시작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활동 확인서에 의미 없이 채워진 수백 시간의 봉사실적보다 여러분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진심을 다한 활동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가 생각하는 리더십

‘리더십? 난 리더십이 별로 없는데…….’

반장, 부반장 임명장이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것’과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동체활동, 협동학습 등에서 구성원을 배려하며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한 경험**은 여러분이 리더의 자질을 배우고 성장하도록 만듭니다.

- 수업 중 모둠 과제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
- 토론활동에서 함께 결론을 이끌어가며 설득력 있게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
- 학교생활 내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 동아리활동에서 부원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 모두가 주저할 때 친구들을 독려하여 청소를 주도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장차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갈 여러분이 고등학교 생활 중에 경험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질입니다. 이러한 자질도 학교 내에서 다양한 기회를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생활을 통해 경험하고, 길러온 능력은 학교생활기록부, 추천서에 기록되고, 입학사정관은 여러분의 모습이 담겨있는 학교생활에 주목합니다.

학교는 이렇게 도와주세요

■ 생각하는 수업, 배움의 장

● 교실 안에서 학생의 재능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학업능력, 자기주도적인 학습 노력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강의 위주의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개인적인 특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 각자의 개성과 능력, 적성에 따라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과 과제를 제공한다면 학생들은 학업활동에 흥미를 느끼며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수준이 모두 다르고 관심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지적 욕구를 채워주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정규 수업의 충실한 학습활동이 기본이 되어야겠지만 필요하다면 정규 수업 외에도 다양한 학업 관련 동아리 활동이나 탐구활동을 학교와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지도와 후원에 학생들은 교실 밖에서도 큰 힘과 자극을 얻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이 선생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으로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지적 체험을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학교 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더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서울대학교에서는 **깊이 있는 지적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능력에 맞는 다양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어 학습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깊이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활동하는 모습을 선생님들께서 지켜봐 주세요. 선생님의 지도와 지원에 힘입어 학생들이 한층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알고자 하는 의지가 학교 안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어떻게 노력하였는지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 학업 외 활동도 지원해 주세요

다양한 경험과 재능을 지닌 학생들과 서로 어우러질 때 학생들은 세계 속의 리더로 성장합니다.

고등학교 생활 동안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어울리며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은 리더십, 사회성을 다지는 좋은 연습이 될 것입니다. 재능 있고, 관심 있는 학생들의 개성을 담은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활동, 체험활동 등으로 학교 안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생활태도, 올바른 인성, 공동체 의식을 갖춘 학생들**을 기대합니다.

Ⅰ 학생 중심의 학생부

●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겨주세요

같은 교과목의 수업이라도 학교마다 교실마다 수업 내용은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 저마다의 특성과 성장의 모습은 다르게 빛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을 꼼꼼히 읽으며 교실에서 어떤 수업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학생은 어떤 능력을, 어떤 소양을 키우고 발휘해 왔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안에 **학생 개개인의 학습활동 내용**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교과학습 내용이나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세세하고 장황한 내용보다 **학생을 평가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해주세요.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기록을 담아주세요. 학습활동의 결과만이 아니라 배움의 동기와 과정, 결과와 후속 활동까지 기록된다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추천서를 통해 학생 개인의 학교생활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각 과목 수업에 임하는 자세, 수업에서 보인 적극성, 학업소양과 특성 등 선생님들이 보는 그대로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선생님의 관심, 학생의 고민

● 학생의 진학과 진로에 관심을 보여주세요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진학과 진로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학생들의 진로와 목표, 가치관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에 대해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노력의 질과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충실히 노력해 간다면 진로가 변한다 해도 그동안 쌓아온 역량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다른 곳이 아닌 학교와 선생님을 의지하며 목표에 따른 고등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교 구성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학교 구성원이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과 담당 선생님들은 수업만 담당하고, 진학 담당 선생님들만 진학에 관심을 갖는 시스템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교과 담당 교사, 학급 담임 교사 등 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항상 학생의 관심과 특성을 공유하여 학생이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진학 상담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주도해 주세요.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진학 상담을 위해 학원이나 사설 컨설팅에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와 직접 소통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는 분은 학교 선생님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믿고 담임 선생님과 진학 지도 선생님에게 진학 관련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교에 진학 정보실이 마련되어 언제든지 학생들이 찾을 수 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도 선생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입학서류 작성은 이렇게 하세요

학교생활기록부와 더불어 자기소개서, 추천서는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핵심 자료입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은 제출서류를 읽고, 관련 사항을 서로 비교해보며 지원자의 특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 그동안 여러분이 학교생활에서 열심히 노력해온 모습을 자신의 글로 나타낼 좋은 기회입니다. 자기소개서에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 중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을 담아 주기 바랍니다.

- 가장 힘들게 또는 신나게 했던 공부 경험, 공부 방법, 느낀 점
-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소중했던 경험
- 열심히 노력해온 일, 많은 시간을 쏟은 일
- 자신에게 영향을 준 책
-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사례 또는 친구와 함께 했던 의미 있는 활동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작성에 많은 부담을 느끼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서류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자기소개서라고 믿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생 개인의 학교생활 대부분을 파악하고 평가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나만의 특성**을 자기소개서에 보여주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생활 모습이 담겨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나만의 모습을 나만의 목소리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 ‘나’, ‘나의 노력’에 대해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대학에 지원하는 동기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등학교 기간을 돌아켜 보며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열정을 쏟아왔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해 봅시다. 내가 노력했던 많은 일들과 과정이 있습니다. 그 사실만을 나열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느낀 점과 나의 생각을 담아보세요. 어떤 동기와 목적,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왔는지,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았는지를 기록해 봅시다.

● 고등학교 기간 중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성장과정을 연대순으로 늘어놓거나 가족관계를 길게 나열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원자의 성격이 형성된 배경 등에 대한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자기소개서를 통해 지원자가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므로 고등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그대로 나열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수상경력을 단순하게 나열하여 대회명, 수상 일시, 수상 등급 등을 적는데 그치는 지원자가 많습니다. 대학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알 수 없는 지원자의 숨겨진 특성, 자질, 노력 등을 자기소개서를 통해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단순한 사실을 나열하기보다는 특별히 노력한 과정이나, 역량을 쌓기 위해 어떻게 공부하였는지, 왜 나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었는지를 나타내 주기를 바랍니다.

●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기술해 주세요

자기소개서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원자의 특성이나 자질 등을 나타내야 하지만, 이것이 곧 감정적인 내용을 서술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소개서에는 구체적인 경험이나 일화 등을 중심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을 담아주세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균형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기소개서 “NG” 예시

저는 고등학교 기간 동안 국어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던 과목이니 만큼 열심히 공부했고 국어 과목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내 백일장에 참가하여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배운 김승옥님의 ‘무진기행’은 저를 문학의 길로 안내해준 작품입니다. 처음에는 제목만 보고 기행문인가 단순히 생각하였는데 무진기행을 배우면서 소설 속 아름다운 문장에 매료되었고 이 작품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교과서에는 소설의 일부분만 소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선 학교 도서관에서 무진기행 책을 찾아보았고,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소설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단숨에 책을 읽었습니다. 특히 문학 선생님의 도움으로 무진기행과 관련한 다양한 분석 자료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단편 소설이지만 등장인물, 시공간적 배경, 작가의 생애 등을 주제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고 이를 통해 작품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진기행을 여러 번 읽으면서 소설 속 문장, 장면이 매번 새롭게 다가왔고, 그 때마다 저의 감상평을 정리하였습니다. 책을 읽고 감상평을 정리하는 습관 덕분에 이후 교내 백일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나의 모습, 나의 생각을 나의 목소리로 담아 주세요

다른 사람의 자기소개서를 참고하다 보면 나만의 생각이나 나만의 독창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조언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나만의 생각과 문체로 개성을 나타내 보세요.

자기소개서는 면접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자신만의 언어로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좋은 문장을 만들기 위해 여러 사람이 첨삭하여 만들어진 자기소개서로는 학생 본연의 모습을 잘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 상투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은 피해 주세요

자기소개서는 남과는 다른 나를 표현하는 글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상투적인 문구나 뜻을 짐작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문구로는 입학사정관에게 ‘나’를 표현하고 자신의 인상을 강하게 심어줄 수 없습니다. “반장 역할을 잘 해냈다.”, “열심히 하겠다.” 등의 문구로는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막연한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원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면 단순한 경력보다는 임원 활동의 계기나 동기,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 경험, 이를 통해 향후 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기소개서 “NG” 예시

저는 2학년 때 교내 신문부에서 회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동아리를 이끌어가며 어려움도 많았지만 리더십과 배려심을 배울 수 있었고, 부원들과 열심히 활동한 결과 학년 말에 우수 동아리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저는 2학년 때 교내 신문부에서 회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학교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여 취재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신문부에 지원하게 되었고, 친구들의 지지로 회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를 이끌어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기사를 처음 쓰는 후배들의 경우 원고 작성이 서툴러 기사를 통째로 수정하는 일이 빈번하였고 이로 인해 부원들 사이의 갈등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원들을 만나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무엇보다 동아리 내 선후배의 소통을 활성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선배와 후배를 한 조로 하여 기사 주제 선정과 취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최종적으로 직속 선배가 후배의 기사를 교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선후배 간에 기사 작성 뿐 아니라 학교생활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니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동아리 분위기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신문부 회장으로 보낸 1년은 제게 사람 간의 소통과 배려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준 소중한 경험입니다.

● 독서경험을 기술하는 4번 항목에도 ‘자기 생각’을 담아주세요

자기소개서 독서 항목은 지원자의 독서 경험을 통해서 지원자의 생각을 보여주는 자기소개서 안의 또 다른 자기소개서입니다. 따라서 책의 줄거리 요약이나 내용 소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던 책을 3권 선정하여 그 책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어떤 생각을 하게 하였는지, 또는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등의 내용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선정은 지원하는 모집단위와 관련성이 없어도 됩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책을 선정하여 경험과 생각을 담아주기 바랍니다.

추천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서울대학교에 구체적인 언어로 소개해 주시는 자료가 추천서입니다. 학생들의 고등학교 3년간의 학교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관찰해온 분들이 선생님이며, 교육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선생님이십니다.

● 지원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작성해 주세요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추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원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지원자를 관찰해 왔으며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추천서를 작성해야 미사여구만 나열되는 의미 없는 추천서가 되지 않습니다. 유명인사에게 추천서를 받는다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자의 성격, 교육 환경, 잠재력, 고등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이 작성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 구체적인 학업능력에 대해 담임 선생님이 잘 모르는 경우 교과 담당 선생님께 그간 학생을 관찰한 내용을 전달받아 작성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로는 충분히 파악이 어려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이 다시 추천서에서 그대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수상경력을 단순 나열하거나, 교과 성적을 추천서에 다시 강조하여 적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추천서야말로 학교생활 기록부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지원자의 숨겨진 특성이나 자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형 자료입니다. 추천서에서는 다른 자료로는 보여줄 수 없는 지원자의 인성, 학업 관련 특성, 장점/단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화를 기술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학년 1학기 교과 성적이 매우 떨어졌을 때 지원자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어려운 가정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지원자의 학업능력 평가 시 고려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의 단순 사실 나열은 좋지 않아요

추천서 “NG” 예시

지원자는 학업능력은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지원자는 1학년 1학기 때 국어, 수학, 영어에서 1등급 받았고, 1학년 2학기 때에도 국어, 수학, 영어, 기술가정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2학년 1학기 때에는 한국지리, 경제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았고, 2학년 2학기 때에는 사회문화를 제외하고 모두 1등급을 받았습니다. 지원자가 받은 다수의 교과상만 살펴봐도 지원자의 학업능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수려한 문장보다 내용이 중요해요

추천서는 내용을 비교적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서 작성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기로 유명한 교내 국어선생님이 모든 지원자의 추천서를 검토해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에 도움이 되는 추천서는 문장이 수려한 추천서가 아니라 내용이 충실한 추천서입니다. 지원자를 평가할 때 고려할 내용들을 충실하게 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추천서를 작성하는 분들은 이를 읽는 입학사정관이 무엇을 궁금해 할지, 어떤 내용을 찾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에 대해 솔직하게 서술해 주세요

추천서에서 지원자에 대해 무작정 칭찬만 나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저히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을 최상위권 학생이라고 쓰거나, 함께 추천서를 써주시는 같은 학교 모든 학생들에 대해 봉사성이 우수하다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천서 내용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고, 지원자를 평가할 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에 대해 솔직하게 언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선발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추상적인 문구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알 수 없어요

추천서 “NG” 예시

지원자는 리더십이 매우 우수합니다.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그러하듯이 학교 공부에 신경을 쓰느라 임원 활동 등 리더십과 관련된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지만 주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리더십이 훌륭한 학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기간 동안 리더십을 보일만한 구체적인 활동은 없지만 대학에 입학하면 지원자의 잠재된 리더십이 발휘되리라 생각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해 하십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평가에 도움이 되는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떤 것인가요?

학교생활기록부는 말 그대로 학교생활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서류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육부가 정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술 내용에서 찾아내고자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학습 경험과 학생 개인별 경험의 기록

서울대학교는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 중에 보여준 학습 노력, 학업수행 과정, 열의, 학업소양, 적성, 학습 방식 및 결과 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여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역량은 성적에서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수치 이외에 수업시간에 순간순간 드러날 것입니다. 교실에서의 수업은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 역량을 키울 기회로 삼아 주도적으로 노력하여 소양을 다지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수업 중에 보인 개별적인 노력**을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중점을 두고 파악하고자 하는 또 한 가지는 학생 스스로의 경험과 노력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업 결과 이외에도 학생 개개인이 어떤 노력과 학업 특징을 보여 왔는지, 특별한 학업소양을 어떤 학습과정에서 어떻게 보여 왔으며 어떤 성장을 보였는지를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장황한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이라면 간추려서 주로 공통 고교정보(구 학교소개자료)에 기록하고, 학생 개개인이 보인 특징적인 학업소양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선별하여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창의적 체험활동의 세부활동을 기록함에 있어서도 공통적인 사항은 학교소개자료에 기록해주시고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소양, 개별적인 경험이나 노력이 나타나도록 작성해 주셔야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선생님들이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더욱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IV.
한국의
문화
유산

V

선배들이 들려주는
나의 이야기



2019학년도 면접 우수자 인터뷰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면접 우수자 학생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전국 각지의 일반고에서 공부한 새내기 10명이 모여
면접과 면접 및 구술고사와 관련된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니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영어영문학과, 경제학부, 간호대학, 기계항공공학부 우주항공공학전공, 전기·정보공학부, 산업공학과,
산림과학부,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지구과학교육과, 자유전공학부 새내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01. Interview

서울대 면접실,
정말 아담한
공간이다.

새내기 _ 예. 정말 작고 아담합니다. 면접관님과 제가 앉아 있는 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마치 대화하듯 면접을 치른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면접 이전에 다른 대학 면접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서울대학교의 면접실은 매우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큰 목소리로 힘주어 말할 이유도 없고 교수님도 꽤나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면접실에 입장할 때는 제법 긴장했지만 생각보다 편하게 면접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억지로 바른 자세를 잡고 시선을 맞추는 연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달하고 싶은 말을 마치 곁에서 차근차근 말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입학하고 안 것이지만 면접실로 사용된 곳이 교수님 연구실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면접을 치를 때는 아늑해서 좋았지만 다소 작은 공간이 교수님들 연구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생각했던 것보다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아담한 공간에서 연구하신다는 생각에 기분이 묘했습니다.(웃음)

02. Interview

제시문은 결코 어렵지 않다.

새내기 _ 저는 수학 면접을 치렀는데 면접 준비를 하며 아로리 자료창고에서 기출 제시문을 찾아 풀어봤습니다. 꽤 오래 전 제시문은 분명 쉽지 않았는데 한 3년 전 기출문제부터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제시문은 작년 것보다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 면접을 본 선배들이 말해줬던 것보다 더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쉽게 풀 수 있다는 건 다른 학생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면접관님들에게 좋은 풀이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수학 문제의 특성 상 정답을 말하는 것보다 그 풀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면접 중 조금 더 수학적으로 충실한 풀이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 애썼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은 긴장한 탓이었는지 중간에 한 번 말문이 막혔던 적이 있었는데 면접관님이 조금해 하지 말고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보라는 말씀도 해주시며 충분히 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가 순간 기억이 나지 않았던 내용은 너무 기초적인 개념이었는데 그 공식의 이름이 순간 떠오르지 않아 아예 그 공식이 도출된 과정을 풀이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살짝 미소를 보이셨던 것 같은데 솔직히 그 미소의 의미는 아직까지 모르겠으나 지금 제가 서울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긍정적인 미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웃음)

새내기 _ 다른 친구들은 난이도를 어떻게 체감하는지 모르겠지만 전 쉽게 풀었습니다. 저는 지구과학 면접이었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지구과학 I 과 II 과목을 잘 공부한 학생이라면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과서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만 충실히 이해하고 있어도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최근 몇 년 사이의 기출 경향과 비교해 보아도 여전히 쉬운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3학년에 들어서 지구과학 II 과목을 이수했는데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나와 별 어려움 없이 면접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는 지구과학만이 아니라 과학 교과 전반을 모두 공부해야 해서 조금 힘이 든다는 생각도 했지만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사실 서로 연관성이 높은 개념들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과학적 현상을 이해하고 풀이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걸 왜 배우는지 몰랐지만 결국 면접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공부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도 합니다. 또 면접실에서 제가 풀이를 하면 교수님들이 제 대답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그 점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말하는 면접이 아니라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이 제가 설명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새내기 _ 제 생각에도 과학 과목을 II 까지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저는 생명과학과 화학 제시문을 풀었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가 과학중점과정이 있어서 과학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는 생명과학 과목은 모두 들었습니다. 저도 기출 문제를 2~3년 치를 풀어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올해 제시문의 난이도도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풀이할 것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화학에서 시간이 더 들었지만 생명과학이 쉬운 편이어서 면접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념만 잘 알고 있다면 풀이 과정은 시간이 더 들더라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처음에 그림으로 설명해야 하는 문제에서 실수를 했는데 곧바로 교수님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생각한 것은

내가 잘못 표현해서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어쩌면 처음부터 이 문제가 학생이 실수할 것을 알고 피드백을 주었을 때 조금 더 근본적인 개념으로 다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 의도를 제가 바로 알아차리고 정확하게 다시 개념을 적용한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아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와 같은 착각을 했을 만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새내기 _ 저도 생각보다 쉬워서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준비실에서 제시문을 이해하고 풀이하는 것보다 면접실에서 이걸 면접관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할까를 고민했습니다. 물론 저는 수학을 풀었지만 결국 어떤 과목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그 과목이 어떤 과목이건 아주 쉬운 개념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수학 문제도 예상보다 쉬워서 준비실에서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면접관에게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던 시간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새내기 _ 저는 다른 대학 면접을 직전에 보고 서울대 면접을 봤는데 사실 직전에 본 면접이 너무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서울대가 쉽게 느껴졌습니다. 서울대는 면접관님하고 대화하는 방식의 면접이었고 제가 풀이하는 과정에 대해 피드백이 바로바로 이루어졌지만 직전 학교의 면접관님은 오로지 경청만 하시고 저 혼자만 떠들다가 시간이 돼서 마무리하고 나온 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중에 면접관님의 반박에 멈칫할 때도 있었는데 순간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좋지 않은 결과는 물론이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제 논리를 굽히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면접을 마치고 나올 때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면접을 잘 본 학생만 모이는 자리라고 하니 제가 그때 굽히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웃음)

03. Interview

혼자서도
충분하다.

새내기 _ 저는 아로리에서 읽은 선배들의 면접 후기가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문제도 쉽게 나와서 면접을 마치고 밖으로 나올 때 왠지 이곳에서 3월부터 공부할 것 같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면접 후기까지 전하게 되니 제 예상이 확실히 맞은 것 같습니다.(웃음) 특히 수능 후 일주일 동안 면접 준비를 베풀치기로 할 수 없다는 선배의 말이 인상적이었고 무조건 교과서 중심으로 개념을 이해하고 이걸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한 것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복습이 중요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습이 도움이 되려면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충분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학원에 대한 유혹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학원에 오가는 시간도 아깝고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합격한 선배들의 말을 믿고 그냥 교과서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새내기 _ 1단계 합격을 하면 원서를 처음 쓸 때보다 훨씬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처음에야 1단계라도 통과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보통이지만 막상 1단계를 통과하면 조금 더 잘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서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주위의 권유로 학원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주하는 곳이 우리나라의 최남단 지역인데다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던 터라 그냥 학교에서 면접 준비를 했고 어차피 내가 알고 있는 걸 전달하는 것이 면접이라 생각하여 혼자서 공부했습니다. 게다가 제 내신이 그렇게 내세울 만한 성적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노력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새내기 _ 인문학과 사회과학 제시문은 사실 준비랄 것이 없습니다. 제시문 자체가 정답을 고르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결국 평상시에 얼마나 생각하는 힘을 키우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지역균형으로 지원할 줄 알고(웃음), 평소에 일반전형 면접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1단계 합격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준비를 하려고 하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뭘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지 명확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서울대학교 면접 문제는 어차피 평소 실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시며 남은 시간 동안 차라리 말하는 연습이나 좀 해두는 것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출 제시문을 보고 제 나름대로 대답하는 연습을 했고 친구들이 옆에서 제가 말하는 걸 지켜보며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었던 책들을 소개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물론 제시문 활용 면접은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제 생각을 얹혀 논리적으로 면접관에게 말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 말씀대로 어차피 말하는 연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제가 읽었던 책의 내용을 전달하는 연습을 하며 일주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04. Interview

함께하면
더욱 좋다.

새내기 _ 학교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도시와는 거리가 먼 지역의 학교여서 어디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 수도 많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런 일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대학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돌아가며 각 대학의 면접 준비법을 공유하며 서로서로 면접관 역할을 하며 도움을 줬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부랴부랴 기출 문제를 구해다 주셨고... 왜냐하면 모두가 제가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어서, 더더욱 집중적으로 도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은 일부러 어려운 문제로 연습하게 하셨습니다. 연습을 어렵게 해야 실전에서 그래도 당황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모두 아로리에 실린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선생님이 대단하시다고 느꼈습니다.(웃음)

새내기 _ 저도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뽑아다 주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울대는 절대로 비슷한 문제를 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상 문제는 없다. 남은 시간에 교과서나 복습하자.” 라고 하셨는데 복습은 저 혼자 하는 것이었고...(웃음) 그래도 그때는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상황이어서 선생님이 많이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여 그걸 보며 제가 말하는 방식이나 자세 등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서울대는 면접실이 작고 바로 코앞에 면접관님이 계셔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다른 대학 면접 때는 꽤나 도움이 되었습니다.

새내기 _ 저는 선배들의 조언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아로리에 실린 면접 수기가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안내'라는 책에도 실려 있는데 저는 아로리가 아닌 그 책자를 통해 면접 이야기를 접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 인터뷰를 했던 학생 중 하나가 제 선배였는데 제가 오늘 또 그런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 감회가 새롭네요. 결국 면접 우수자들이 말하는 내용의 공통분모는 모두 기본기를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내용은 비교적 정중한 표현으로 적혀 있는데 선배가 제게 딱 한 마디 더 하더라고요. “딴 짓 하지 말고 그냥 공부나 해.”라고 했는데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사실 면접 준비도 그렇지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그 당연한 걸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끝나고 마음을 비우다시피 하며 천천히 교과서를 복습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사실 원서도 서울대만 썼기 때문에 집중하기에는 정말 좋은 조건이었죠.(웃음)

05. Interview

면접의 시작은 학교 수업에서!

새내기 _ 저는 주변에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도 없었고 실제로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선배도 없어서 여러 가지로 불안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사실상 학원이 없는 곳입니다. 평범한 학원도 없는데 면접 학원이 있을 리는 만무한 환경이죠.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면접을 잘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이 운 좋게 제시문으로 나왔다 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도 과학중점과정을 이수하며 왜 수능에 나오지도 않는 과목까지 공부해야 하나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학에 입학하고 아직 한 달 정도밖에 강의를 듣지 못했지만 일단 대학교 교재를 펼치면 제가 힘들게 공부해야 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전공 과정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고등학교에서 소홀히 공부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강의 몇 번과 교재 몇 권만 봐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차라리 그때 영문도 모르고 마냥 열심히 공부했던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대학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접도 잘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충분히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면접 대비는 물론이고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도 정말 필요한 것이란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내기 _ 이번에 일반전형 면접을 봤지만 사실 저는 작년에 서류기반 면접을 응시한 경험도 있습니다.(웃음) 그래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두 면접이 분명 성격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 비슷한 점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나온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 기반 면접이 단순히 사실 관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행한 내용에 대한 꼼꼼한 의미까지 질문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당시 저는 미학에 관심이 많아서 나름대로 읽은 책들에 대해 의미 부여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면접관님의 질문은 제가 겉핥기로만 공부했다는 반성을 할 수 있을 만큼 예리한 내용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서류에 나열된 사실 관계의 확인은 기본이지만 평범한 내용도 심층적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반전형 면접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서류기반 면접이 제게는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두 면접이 결국 확인하고자 하는 건 소재는 다르지만 제대로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히 대답할 수 있는 능력, 즉 그것이 무엇이건 제대로 알고 명확히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말로 무엇인가를 표현하는데 익숙한 성격이 아니었지만 결국 공부는 내가 알고 있는 걸 안다고 표현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내용을 전달하는 능력은 필요한 것이고 사실 제대로 전달할 능력이 있다면 말은 정말 많이 안 해도 된다는 것ですよ. 즉 저처럼 말하는데 부담이 많은 친구들이 있다면 결국 제대로 공부해서 말을 효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웃음)

새내기 _ 서울대 면접을 달리 표현하면 그냥 한 문제를 놓고 선생님과 대화하며 같이 풀이하는 과정 같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선생님께 질문하러 교무실에 가면 책상에 앉아 함께 종이에 문제 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순간과 면접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비슷하고 종이에 적어가며 하나씩 과정을 검토하는 것도 비슷하고 심지어 중간에 막히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마치고 나올 때 기분이 학교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기분과 비슷했습니다. 물론 아차, 내가 지금 면접을 보고 나온 것인데 이런 기분이 들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시험을 마친 기분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 더 공부하고 나온 느낌이었습니다.

새내기 _ 처음부터 서울대를 희망했던 것은 아니었기에 학교생활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도 대입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면 못했을 일입니다. 오히려 내신에 몰입했다면 독서는 정말 뒷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허투루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어도 나름 생산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발표 수업이 종종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앉아 면접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책을 읽고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해왔던 일이라 면접도 그냥 평상시 생각을 잘 전달하면 되겠지 하며 별 부담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시문도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시간을 내어 책을 읽으며 골똘히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이란 꼭 책을 읽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그게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하나라도 내가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 시간을 내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새내기 _ 문제를 풀 때 항상 듣는 말이 출제자의 의도 파악부터 하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어보지 않은 대한민국의 고교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대 면접의 질문 내용은 복잡하지 않고 분명합니다. 즉 의도 파악은 어렵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면접 전부터 고민한 것이 쉬운 질문의 의도를 쉽게 대답하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나의 논리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들을 제가 읽은 책들에서 인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책을 아주 많이 읽은 편은 아니지만 그나마도 학교 수업 시간에 읽은 책들은 정독을 한 편이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면접에서 제 생각을 전개할 때 근거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상했던 것만큼 제가 읽은 책을 통해 쌓은 지식을 면접에서 충분히 활용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웃음) 어쩌면 책에 있던 배경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책을 다시 꼼꼼하게 읽으며 하나하나 공부한 과정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새내기 _ 고등학교 기간 내내 배운 내용을 일주일 안에 다시 완벽하게 공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면접 직전까지 수능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은 과목을 면접 과목으로 보게 될 경우는 더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기본 개념에 대한 학습은 여러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도 기본 개념이 쌓여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풀이보다는 기본 개념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쉬운 개념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다보면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풀이만 집중하면 결국 요령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념은 희미해지고 아주 쉬운 풀이도 답은 맞추지만 왜 이렇게 되었는지 갑자기 질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서울대 면접은 선배들도 누차 강조하지만 결국 기본기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 기본기는 사실 교과서의 기본 개념들입니다. 무심코 지나칠 만한 내용도 반드시 왜 그런지 확인하고 넘어가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새내기들의 면접 후기 재밌게 읽었나요?
사실 인터뷰에 참여한 새내기들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분명 면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그 과정에서 공부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를 고민한 흔적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이 학생들이 어떻게 1단계를 통과했는지
왜 서울대학교가 서류평가에서 이 학생들을 선택했는지 많은 힌트가 들어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읽은 면접 후기를 면접 준비를 위한 용도로 한정하여 생각하지 말고
이 학생들이 과연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했을까를 유추해 보세요.
결국 면접은 서류평가의 연장선에 존재하는 것이고
조금 더 배움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노력한 학생이 결국
면접도 훌륭한 평가를 받았네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학교생활은 물론
여러분의 성장에도 훌륭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016, 2017, 2018학년도 면접 우수자 인터뷰는 웹진 「아로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우수 학생 수기



인문대학 국사학과, B○○

경영대학, K○○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우주항공공학전공, Y○○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소비자학전공, R○○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P○○

의과대학 의예과, J○○



인문대학 국사학과 B○○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에 대해 가졌던 가장 큰 오해는 서울대학교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만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모든 내신이 1등급이고, 학급 반장이나 학생회 임원 혹은 동아리 부장을 수시로 맡은 사람, 입학 전부터 지원학과와 진로가 정해져 있고, 모든 교내 대회에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한 사람, 저는 이런 사람만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해서 관련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1학년 때부터 구체적으로 목표 대학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대학은 성적이 점차 오르는 학생을 좋아하지만, 서울대학교는 처음부터 성적이 최상위권인 학생을 원한다.'는 주변 이야기에 원서를 제출하고 나서도 불합격할까봐 마음을 졸였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대학교는 고등학교 기간 동안 대학교 수준의 책을

많이 읽어야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는 1년에 책을 수십 권 읽어서 서울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했다더라.'는 식의 소문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한때는 학술지나 두꺼운 책들만 골라 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책들만 읽다보니 공부할 시간은 부족했고, 기억에 남는 내용도 별로 없었습니다. **무조건 어려운 책을 많이 읽기보다는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내용을 정리해보고 그 내용을 토대로 수업 시간에 발표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독서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서울대학교 수시모집 면접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면접은 말 잘하는 사람만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 지원할 정도의 학생들이면 다들 아는 것도 많고, 말도 막힘없이 해서 저처럼 긴장하면 말이 빨라지는 사람들은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은 단순히

말하는 능력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면접 문제를 풀어나가는 학생의 역량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한 모습을 보이거나, 말을 더듬는다고 해서 평가에 큰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기간 중 교내 자율동아리는 제게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일제강점기 때 우리 지역이 얼마나 번창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 당시 왜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었는가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제강점기 우리 지역의 가치와 변화 모습'이라는 주제로 자율동아리에서 탐구활동을 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며 우리 지역의 발전사를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역사를 공부 할 때 사회, 지리, 언어 등 다양한 학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흥미가 없는 과목도 가급적 희망하는 전공과 연결하여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일례로 과학 시간에 과학혁명의 성과에 대해 발표해보았고, 세계지리 시간에는 「도시의 기억이다」라는 책의 내용을 토대로 도시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던 과목과 희망 전공 사이에 접점을 찾으면서 한 과목이라도 소홀히 공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이는 내신 성적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면접 준비를 위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2박 3일 면접 준비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면접에서 어떻게 말해야하는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하는지를 알 수 있었고 면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에서 제시문을 이해하거나,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 등은 고등학교 생활 내내 공부해 온 방식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면접 준비 과정에서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을 다시 한 번 읽어 보았는데, 특히 책에 소개된 다양한 사례나 통계 자료에 주목하여 실제 면접에서 해당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았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인문대학 면접에 출제되었거나, 앞으로 나올 만한 주제들을 사회 과목에서 골라 복습했습니다. 작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남녀차별' 등의 주제들은 생활과 윤리 교과서와 개념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

었는데, 폭넓은 지식을 공부하고자 한다면 사회 교과서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제시문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이기는 하나 예전에는 제시문에 어려운 어휘도 많고 직접적으로 주제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최근에는 쉽게 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글들이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면접 연습을 할 때는 분류, 분석, 예시 같이 국어 시간에 배운 말하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에서는 문제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풀이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위와 같은 말하기 방법을 활용하여 설득적으로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대학에 와서 느낀 점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대학에 오니 정말 글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수업에서 한 번 이상 서평, 보고서 등의 글쓰기 과제가 제시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고등학교에서 공부에만 몰두하여 글쓰기를 소홀히 하면 대학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글쓰기라는 것이 글 쓰는 방법만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글을 많이 써보고, 퇴고도 해봐야 실력이 향상되므로 고등학교 때부터 글을 쓸 기회가 있다면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는 동아리 활동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수능 공부에만 집중하려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공부가 중심이고, 과학 실험, 역사 보고서 작성 등과 같은 탐구활동은 부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그동안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했던 실험, 보고서 작성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므로 적어도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본인의 진로와 관련하여 탐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영대학, KOO

저는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자기소개서의 4번 문항, 즉 독서 기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독서 기록을 요구하는 대

학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책 3권을 1,500자 분량에 녹여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책 내용 요약이 아닌, 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준 영향을 써야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작성해야 좋을지 감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수험생 여러분들 또한 서울대학교의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면서 한 번쯤 고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 번의 자기소개서 작성과 수정을 거치면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알아보기 위해 노력했던 내용을 독서 기록과 함께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했고 관련 내용으로 해당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면접이 궁금했습니다. 저는 수시 일반전형에 지원했기 때문에 학과별로 정해진 문제를 푸는 면접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주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답을 빠르게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문제 풀이를 중심으로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면접은 결국 대화이기 때문에 실제 타인을 앞에 두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해주셨고 학교에서 주관하는 여러 모의 면접을 통해 면접 경험을 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면접 상황 자체에 익숙해졌고 집에서 혼자 연습한 결과 자신 있게 면접을 통과한 것 같습니다. 실제 면접장에서 깨달은 것은 단순 문제 풀이만으로는 서울대학교 면접을 잘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답을 말하는 것보다 풀이 과정과 자신의 견해를 상대방에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면접은 정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보다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기간 동안 저에게 의미 있었던 활동 중 하나는 ‘인문사회 과제연구’였습니다. 자신이 연구해보고자 하는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팀원들과 약 8개월 동안 탐구활동을 하였는데 수업에서 배운 지식들을 확장하고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경영이라는 진로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의류 구매 결정 요인과 그 마케팅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탐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제 과목을 배우며 알게 된 여러 소비 형태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여러 서적들을 찾아보며 경영에 대한 흥미가 더욱 커졌고, 진로를 뚜렷이 설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업과 달리, 관심 분야를 깊이 학습했기 때문에 아직도 제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활동입니다.

멘토·멘티 동아리도 제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준 활동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성적이 나쁘지 않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공부와 관련하여 여러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친구들끼리 멘토·멘티 활동을 하면 반 전체의 학업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고, 2학년 때 직접 동아리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멘토·멘티가 되고 싶은 친구들의 지원을 받아 멘토 1명 당 멘티 2명을 배정하여 함께 공부했고, 일주일 단위로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 활동은 제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기주도학습 시간이 늘어났고 똑같은 문제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친구들의 경우 주로 개념적인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았는데 이러한 질문에 답변하고, 공부하면서 과목별 기초 개념들을 완벽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공부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해와 반복을 통한 개념의 확립’**을 항상 추구하였다는 점입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공부와 암기를 거의 동일 선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공부해야 하는 양이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외우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기초 문제는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지만, 심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자주 오답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글자만 외우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한 개념과 내용들을 모두 이해하고, 이를 하나의 흐름으로 머릿속에 그리는 습관을 가지고 자 했습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진행하니 단순 암기보다 공부 속도가 훨씬 빨랐고 기억에도 오래 남았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각 단원 간의 연계성이 큰 사회 과목에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반복’입니다. 아무리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라도 시간이 지나면 상당 부분을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학습하고 또 암기하였습니다. 꾸준한 반복학습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빨리 외워야 한다는 불안감 없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말한 이것들이 공부 방법의 전부는 아닙니다.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며 자신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다양하고 많은 학습 방법들 가운데 제가 '이해와 반복'을 강조하는 것은 이 과정이 공부의 기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그 다음의 공부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저는 대학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았고, 경영학이라는 제 전공에 대해 자세히 소개할 정도로 심도 있게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을 희망하시는 분들만이 아닌, 대학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든 고등학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가 정말로 원하는 분야를 꾸준히 그리고 깊이 준비하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내가 원하는 학과를 찾지 못하여 그저 점수에 맞춰 별 생각 없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대학에만 합격하면 된다는 생각에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겠지만 저는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진로나 학과를 설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이는 한편으로 당연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와 같이 진로와 관련하여 큰 틀을 생각하고, 고등학교 시간 동안 그 큰 틀을 나만의 이야기로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비록 처음엔 매우 기본적이고 평범한 목표일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해 노력한 나의 모습이 있다면 분명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이야기'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동아리 활동에서부터 전교생 규모의 활동까지 어떠한 노력이든 좋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은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후회 없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우주항공공학전공, Y○○

서울대학교 학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고등학생 때까지 공부만 한 외골수의 모습이나, 어렸을 때부터 손쉽게 미적분을 다루는 천재들의 모습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모인 곳이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가 아무리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결국 거의 내신 성적으로만 학생들을 뽑지 않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이 한 번 떨어지면 서울대학교 입학은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저는 2학년 2학기의 내신 성적이 크게 하락한 적도 있었고 같은 학과 학생들에 비해서 내신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보면 말이죠. 물론 그렇지만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적은 학생이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임했는지 보여주는 척도이며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업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과거 기록이니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가고 싶은 대학교에 합격하느냐, 아니냐는 내신 성적으로 판가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내신 성적이 조금 낮다고 해서 진로에 대해 많이 고민해보고, 다양한 탐구활동을 통해 생각의 힘을 길러온 학생들을 쉽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서울대학교가 수시에서 학생들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만 선발하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2학년 2학기 때 내신 성적이 하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요 과목에서 높은 등급을 놓쳤었고 어떤 과목은 그보다 더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꿈인 우주항공공학자가 되기 위해서 물리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간 공동협력교육과정을 통해서 고급물리 수업을 수강하였고, 다른 방식으로 수학을 공부해보고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리논술도 배웠습니다. 두 수업에서는 별도의 중간, 기말고사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학습량이 크게 늘어났고 이것이 당시 제 성적이 유난히 떨어졌던 이유였습니다.

니다. 하지만 3학년 1학기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하락했었던 과목들의 성적을 모두 회복하였고 제가 성장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는 내신 성적만 보고 학생을 선발한다고 해서 오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적이 한 번 하락했다고 해서 단순히 서울대학교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 하락했던 원인이나 그 이후 학생이 보여준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울대학교에 지원할 때 전혀 관심 없는 학과임에도 단순히 성적에 맞춰 지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신 있게 지원하는 것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저는 지방 일반고 출신으로 고등학교에서 물리Ⅱ를 듣고 싶었지만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기에 학교에서 물리Ⅱ를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진로를 위해서는 물리 공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학교 간 공동협력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개설된 고급물리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정규 수업시간이 끝난 뒤 다른 학생들이 내신 공부할 때 저는 해당 과목을 들으며 물리를 공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신 성적이 하락하기도 했지만 당시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저는 물리에 큰 흥미를 느꼈고 앞으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리를 공부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학습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 체념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공부한다면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길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생까지 열심히 공부한 편이 아닙니다. 특목고 입학은 준비하지도 않았고, 단지 나중에 로켓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지만, 이 두 과목을 제외하고 다른 과목에서 딱히 공부를 해야 할 이유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첫 중간고사에서도 그리 높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죠. 하지만 1학년 2학기부터 성적이 점점 좋아졌는데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아! 기계가 움직이는 데에는 동력이 필요하듯이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공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 없이도 공부를 잘 할 수 있겠지만 자신이 왜 공부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원하는 대학교를 입학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때부터 새로운 문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확고한 진로 때문에 혹은 단순히 후회하기 싫어서여도 좋습니다.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찾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할 때는 확실하게 하자! 항상 공부를 잘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자.’ 저도 지겹게 들은 말이지만 정말 이보다 더 맞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땐 공부에만 집중하고 놀 땐 공부 생각하지 말고 놀아야 훨씬 효율적입니다.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한다!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내신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직접 문제를 출제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선생님이 수업에서 가르쳐주신 것이고 시험에서 비중있게 다루지는 문제는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수업 중에 다른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수업에도, 공부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수업 시간에는 해당 수업을 열심히 듣고 공부해야만 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자!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모집안내를 꼼꼼히 읽어보았고, 입학 설명회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여해서 관련 정보를 얻고자 했습니다. 또한 공부법에 관한 내용을 알고자 플래너 작성법 수업도 들었습니다. 저는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시나 공부에 관한 정보들을 많이 얻기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교육청, 학교에서 대학 입학에 힘써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고 그 분들을 통해 다양한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만의 흥미나 잘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나로호 발사 과정을 보며 로켓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우주항공공학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등학교 기간 동안 꼭 진로에 대해 많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다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로 이륙한 비행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고 무엇이든 목표로 잡고 공부해야만 흔들림없이 학교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소비자학전공, R○○

저는 공부할 때 대원칙으로 삼았던 자세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라.’**입니다. 저는 첫 수학 중간고사에서 충격적인 성적을 받았었습니다. 정말 성적표를 딱 받는 순간 드라마처럼 눈물이 또르르 흘렸습니다. 그때 성적을 받고 ‘이대로라면 나는 대학교를 못 간다.’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바로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성적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인지 엄청난 자기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간고사 시험지를 다시 풀면서 선생님이 수업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확인했고, 제가 틀린 문제들을 하나씩 분석하면서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잘못 판단을 했는지 파악했습니다. 중간고사는 기말고사의 청사진이라고 생각하며,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 시험 전에 해야 할 공부들을 적어봤습니다. ‘아, 수학을 더 이상 이렇게 대충 공부하면 안 되겠구나. 다음 기말고사 때는 **개념을 확실히 알고 들어가야겠구나.** 교과서를 완전히 습득하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되뇌이며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했고, 결국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삼년 동안, 모든 과목에 적용했습니다. 시험을 망친 과목이 있을 때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고치고 실천했더니 노력의 결실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성장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시험을 망쳤다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런 엄청난 실천력을 끌어올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지만 이런 괴로움이 반대로 저에게 가장 큰 성장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기간 저에게 의미 있었던 경험은 각종 글을 쓰는 활동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글을 쓸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문학 독후감대회, 사이버 독후감대회 등 여러 독후감대회가 있었고, 논술대회와 다양한 수행평가도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는 꾸준히 글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 갔습니다. 글을 자주 쓰다 보니 글을 쓰는 감각도 좋아졌습니다. 글쓰기 자체가 글을 읽는 활동을

동반하기 때문에, 본인의 독서 능력을 보여주기에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비이성의 세계사」라는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주제로 사이버 독후감대회에 참가했던 일을 정리해서 자기소개서에 기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친구들의 경우 수행평가, 독서캠프 등을 사소하고 의미 없는 활동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저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자 했고, 이를 통해 한층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NIE 동아리와 경제 수학동아리 활동을 하였습니다. NIE 동아리에서는 지원 희망학과와 관련된 기사 분석하고,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학과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 조사하고 알게 되었던 내용들을 지금 대학 수업에서 접하기도 합니다. 경제 수학동아리 활동에서는 ‘항공권 가격은 왜 천차만별일까?’라는 주제로 공부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차별의 원리’를 ‘구분구적법’ 개념과 연결하여 보았는데 경제 현상을 여러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항상 자기소개서에는 ‘배우고 느낀 점’을 적으라고 하는데, 고등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활동(책을 읽고, 정보를 조사하고, 발표 · 토론하는 등)을 열심히 한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원한 학과는 면접에서 사회과학, 수학 문제를 풀어야 했기 때문에 저는 면접 준비를 위해 제일 먼저 서울대학교의 기출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기출 문제들을 보며 출제경향을 파악했고 타 대학의 논술 문제들도 함께 참고하였습니다. 구술면접의 경우 논술과 시험 방식만 다를 뿐,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은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며 제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면접에서는 짧은 시간(30분) 내에 답을 도출해야 할 뿐 아니라 그 답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만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접근방법, 풀이과정을 확실히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면접을 준비하면서 내용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면접 태도**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문제를 풀고 답변하기까지 제 모습을 촬영하여 확인해보았고,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피력하고자 계속 연

했습니다. 실제 면접에서 긴장이 많이 되었지만 면접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침착하게 답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자신의 가치관과 의지를 솔직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혹시 자신이 정말 맛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본인이 본받을 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나요? 혹은 그저 훌륭한 학생의 겉질을 쓰고 있나요? 보통 우리는 스스로를 좋게 평가하고 있지 못합니다. 생각보다 본인이 맛있는 사람인 걸 알지 못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꽤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조금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수님 앞에서, 세상의 성공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나보다 공부를 잘 하고 입시준비를 더 열심히 했을 아이들 앞에서 움츠러듭니다. 자기 자신도 자신을 맛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자신부터 자신을 사랑하고 믿어주고, 자기의 능력에 대해 솔직하고 당당해져야** 합니다. 자신이 공부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꽤나 열정적이고, 생각도 괜찮은 맛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나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자기만이 가진 능력은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고 글로 써보고 표현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소재가 되고 여러분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P○○

고등학교 시절, 저에게는 독서와 동아리 활동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독서 활동을 통해서 막연했던 꿈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다양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꿈을 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소 늦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저는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막연히 어릴 때부터 의사가 가장

좋은 직업이기에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했으나 내가 어떤 분야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과학책을 읽다보니 생명과학과 화학 관련 책을 더 열심히 읽고 있는 것을 깨달았고, 그중 '죽음'과 '동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부분이 명확해지자 미래에 어떤 일을 할지 생각하는 과정이 훨씬 쉬워졌고 '호스피스 수의사'라는 꿈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도 독서를 통해 알게 된 저자들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문학이나 철학 관련 책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독서 활동을 통해서 관련 분야의 지식을 얻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부는 혼자하면 되는 일이지만 동아리 활동은 부원들과 이야기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고등학교 생활 중 큰 부담을 느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찾고 주어진 과제를 함께 수행하면서 어떤 일이든 열심히 노력한다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업시간에 궁금했던 내용을 동아리 시간을 통해 보충해나가면서 학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학업에 집중할 시간을 빼앗는다고 생각하기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면접을 준비하면서 제가 꿈을 정하는데 영향을 주었던 책과 진로에 대해 조사했던 내용들을 다시 꼼꼼하게 읽어 보았습니다.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을 외우는 것보다는 제 말투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학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담임선생님, 진로선생님과 함께 면접에서 나올 법한 질문들에 대해 답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른 대학교의 경우에 자기소개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 대부분이었는데 서울대학교는 제가 정한 진로에 대한 생각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읽었던 책이나 글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공부하느라 시간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자투리 시간이라도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는 고교 시절에 제가 하고 있는 공부와 활동들이 대입에 도움이 되기는 하는 건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 보니 대학의 입장에서 저의 활동을 보았을 때 대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한 활동보다는 정말 흥미로워서 한 활동이 합격에 좋은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뭔가 아깝고 다른 곳에 쓴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내가 궁금한 것을 혼자 해결했을 때의 기쁨을 알고 나면, 어떤 일든 도전할 때의 마음가짐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부든 활동이든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실패하게 된다면 실패한 원인을 찾아가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경험에서 해주고 싶은 말인데, 평상시 너무 작고 사소한 일에 감정을 낭비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집을 푸는데 갑자기 풀이 방식이 헛갈리거나 기본적인 공식이 생각나지 않는 등의 일이 생기더라도 보충해 나가면 된다는 마음으로 차분하고 깨끗하게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작은 일에 불안해 할 때마다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나의 마음가짐에 따라 지금의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을 정말로 추천합니다. 제 주변에는 시간이 많이 들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서 독서를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할 때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나랑 관련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책에서도 진로와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기간 동안 힘들 때가 많지만 누군가는 걱정시키기 싫어서 말할 수 없고, 누군가는 그 사람도 힘들 것을 알아서 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겪었던 시기이고, 더 힘든 일도 극

복해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 해답을 얻고, 위로 받는 경험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의과대학 의예과, J○○

고등학교 기간에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여러 경험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다양한 탐구활동을 스스로 해보았던 점입니다. 스스로 2회 정도 탐구 보고서를 써보는 활동을 하였고 생명과학 동아리에서 이를 발표해 보았습니다. 우선 제가 혼자 했던 탐구활동의 시작은 수업시간에 생긴 궁금증이었습니다. 수업시간에 「닥터스 씹킹」이라는 책을 읽으며 의사의 문진방법이 환자의 증상 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졌고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해놓고 면접법을 통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3학년 때 생명과학 시간에 짧은 가닥 RNA에 대해 알게 된 이후 백혈병이 특정 유전자의 메틸화로 인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 나름대로 백혈병 치료법에 대해 탐구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부를 하며 저는 관심 있는 분야였던 의사, 의료, 소아 백혈병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저의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에게 임상과 연구를 병행하여 치료법을 개발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던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동아리에서 진행했던 여러 탐구활동은 순수 과학에 가까운 실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스스로 주제를 잡고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설계하였기에 이는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저는 **자연과학과 탐구활동 자체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회, 기업가 캠프 등에도 참여하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모여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넘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의 기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고 어느새 수시 원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큰 고민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저

의 자기소개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 좋은 자기 소개서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자기소개서가야말로 3년 동안 쌓아왔던 나의 경험들을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나에게 의미있었던 일들을 생활기록부에서 찾아내고 이를 진솔하게 적어낸다면 충분히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것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것과 또 다르게 긴장되었습니다. 면접의 종류에는 제출서류 확인면접, 제시문면접이 있는데 특이하게 서울대학교 의예과의 경우에는 다중미니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부터 면접 준비까지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기본적으로 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숙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활기록부에 적힌 모든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내가 했던 활동이고 나에 대한 이야기로 새로운 내용은 없었지만, 오래되고 기억이 잘 나지 않은 내용도 있었기에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했고 또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로 풀어낼 수 있도록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였습니다. 면접의 특성 상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말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즉흥적인 말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습은 실제 면접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의예과의 다중미니면접은 5개의 방에서 60분간 면접이 진행되고 그 유형도 매년 달랐다고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져 있는 형태의 제시문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중미니면접을 준비하는 사람이 제게 조언을 구한다면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면접을 본 날 서울에는 첫눈이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주의했던 나머지 치의학대학원으로 면접을 보러 갔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치의학대학원에서 의과대학으로 빠르게 갈 수 없었고 저는 입실시간 3분 전에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늦지는 않았지만 저는 1조였고 입실하고 얼마 되지 않아 면접을 보았습니다. 긴박한 상황 때문이었는지 면접을 볼 때 저는 별로 긴장하지도 않았고 떨

림도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랬는지 제 자신이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타종과 함께 면접이 시작되었고 저는 1번방에서 5번방까지 총 5개의 면접실에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방은 없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저의 생각을 면접관님들께 말씀드렸고, 면접 과정에서 긴장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입이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어 늘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임은 틀림없습니다. 저에게도 대입을 준비하는 일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시험을 볼 때마다 불안감에 휩싸였고 진로를 탐색하며 어떤 것이 나와 맞는 것일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했으며 학교활동을 할 때에도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를 가장 많이 도와준 것은 '어차피 미리 알 수 없는 것을 벌써부터 걱정하지 말자.'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였고 이러한 저의 태도는 불안감을 줄이고 공부를 할 때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대입은 누구에게나 불확실한 것이고 시험 역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모두에게 불안함을 안겨줍니다. 따라서 미리 불안해하지 않고, 하루하루 충실히 생활한다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가 잘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그날 일은 잊고 새로운 내일을 알차게 보내는 것이 여러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의 수험생활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 서울대학교 의예과는 저의 목표였습니다. 사실 주변 사람들과 선생님들 모두 서울대학교와 의예과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이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서울대학교 의예과를 목표로 하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실제로 원서를 써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고 저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학생만을 선발한다는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지원하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지원하게 되었고 합격하여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서울대학교에는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많았고 처음에는 약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

기도 했습니다. '이런 친구들과 나는 어떻게 경쟁해야하지?', '이런 친구들과 나는 너무 다른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합격한 거지?'와 같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나만의 장점이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굳이 그 친구들과 비교하며 나를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더 나아보이는 친구들과 비교하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깎아내리기보다 **자기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며 스스로의 빛나는 점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 안에서 성장해온 학생들을 기다립니다

서울대학교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간혹 특별한 재능과 경력이 있어야만 합격할 수 있다고 오해하거나, 재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학생은 내신 성적 등급 점수가 높게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서울대학교의 학생부종합평가는 **학교 안에서 꾸준한 성취**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학생**이라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학교 안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하기 바랍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보여주기 식의 활동이 아니라 **학업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공부, 인성을 길러주는 모둠 활동**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 안에서 깊이 있는 지적 훈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보다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재능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과 과제**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활동 안에서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학업 외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과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서울대학교의 전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고등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여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묻습니다

Q 수시모집에서 서류평가 방법이 전형마다 다른가요?

A 서울대학교의 수시모집은 지역균형선발전형, 일반전형,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이 있습니다. 이 세 전형은 모두 학생부종합전형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활용하여 평가합니다. 이 서류 외에 평가에 반영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세 전형의 차이점은 지원자격에 있으며, 서류평가 방법, 기준은 같습니다.

Q 수시모집에서 여러 전형에 중복지원할 수 있나요?

A 서울대학교 수시모집에 지원할 경우 여러 전형에 중복지원 할 수 없으며, 한 전형 내에서도 서로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지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균형선발전형과 수시모집 일반전형에 중복지원하거나, 수시모집 일반전형에서 두 개 이상의 학과에 중복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한 개 전형의 한 개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교과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할 수 없나요?

A 수시모집 지원자격과 교과이수기준 충족 여부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교과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지원하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교과이수기준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교육과정 내에서 폭넓은 교과를 이수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아 기준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가능한 지원 시점 이전까지 고른 교과목을 이수하여 고른 학업소양을 갖추기를 권장합니다.

Q 지역균형선발전형은 각 학교마다 계열별 1명씩 지원해야 하나요?

A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지원자격은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제외)로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은 2명 이내라는 제한 조건이 전부입니다. 추천 권한은 소속 고등학교장에게 있으며, 각 학교를 대표할 만한 우수한 학생들이 추천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추천할 때 성적순으로 추천해야 하나요?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학생이 선택하는 교육과정 또는 다양한 진로집중 과정을 설정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 학생의 성적이 등급 평균 순서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적순'의 의미가 모호합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교과 성적만 평가하여 선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적순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각 학교를 대표할 만한 우수한 학생들을 고등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모집으로만 선발하는 모집단위는 정시모집에서는 전혀 선발하지 않나요?



서울대학교 신입생이 되고자 준비하는 학생은 전형별 선발인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단위에 따라 수시모집만 실시하거나 일부 전형에서만 학생을 선발하기도 합니다. 수시모집으로만 선발하는 모집단위의 경우 정시모집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시모집에서 합격자 총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음악대학을 제외하고 미충원 인원을 정시모집에서 선발합니다.



서류평가에서는 교과 성적순으로 선발하나요?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교과외 활동,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바탕으로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단순히 교과 성적순으로 선발하지 않으며 성적을 산출하는 공식이나 보정 점수를 주는 방식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학년별, 과목별 교과 성적 반영 비율도 없습니다.



성적이 꼭 향상되어야만 좋은 평가를 받나요?



성적이 향상되면 떨어지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동일과목 수강자가 적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평가합니다. 즉, 선택한 과목의 수준과 수강자 구성, 인원으로 인하여 단순히 등급이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그런 경우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오히려 성적을 받기 수월한 과목만 이수하여 결과적인 수치만 좋게 받으려 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수인원으로 구성된 과목을 이수해서 석차등급이 다소 낮아지면 평가에 불리한가요?



서울대학교에서 교과성취도를 평가할 때 단순히 등급만을 반영하거나 원점수만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지원자가 이수한 과목과 함께 수강한 학생들의 구성, 수강 인원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므로 소수 학생이 이수한 과목 때문에 등급이 낮아졌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고려하여 소수 선택 과목을 이수하고, 충실히 공부한 모습을 보일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단위별로 반영 교과가 정해져 있나요?



모집단위와 상관없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교과와 성적은 평가에 반영됩니다. 교과학습발달상황에 기재된 교과성취도(내신)의 3년간 이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내용, 그 과목에서 성취한 등급, 원점수, 수강한 학생들의 평균, 표준편차,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 공부한 내용과 그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원점수와 석차 등급으로 표현되지 않는 예술·체육교과의 성취 내용도 반영합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에서 충실히 공부하여 자신이 이수한 모든 교과에서 고르게 우수한 면모를 지닌 학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교외 수상실적 등 소위 스펙이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것 아닌가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수상실적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서류평가는 학생이 학교 안에서 노력한 교과/교과외 활동을 평가에 반영합니다. 학생이 노력한 내용의 동기, 과정, 결과 모두를 분석하여 학생이 지닌 학업 능력, 학업태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학생의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특히 2015학년도부터 대학입학전형에서 외부 수상실적을 기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라며,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공통양식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장 경험이 있으면 평가에 유리한가요?



리더 역할을 한 경험 자체만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리더 역할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한 학생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반드시 학생회장 등 대표자로 활동하는 것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직책을 맡았는지보다 어떤 경험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는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동아리활동은 지원 모집단위 관련 학문 분야와 일치해야 유리한가요?



창의적체험활동 내에서의 동아리활동은 학생의 소양을 넓히는 기회입니다. 학습동아리, 체육동아리, 예술동아리, 봉사동아리, 여가동아리 등 지원자가 선택한 동아리의 종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활동을 통해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였는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따라서 동아리활동이 지원 모집단위와 일치해야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봉사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유리한가요?



봉사활동의 형식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의 배경, 과정 등 학생이 경험한 봉사활동의 내용을 고려합니다. 아울러 봉사활동은 종합평가의 일부뿐이며, 무조건 많이 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희망사항과 지원하는 모집단위가 관련이 없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희망은 항상 변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의 진로희망사항에 기록된 직업보다 학생의 목표를 바탕으로 길러온 역량을 평가합니다. 학생 스스로가 설정한 목표를 위해 공부한 배경, 과정, 결과를 종합할 때 비로소 학생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과 성취가 지원한 모집단위 학업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과정이라면 진로활동이 지원 모집단위와 연관성이 적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모집단위에 합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정 학업 외 활동이나 결과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지원 모집단위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함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탐구활동을 꼭 해야만 좋은 평가를 받나요?



학생이 특정한 활동이나 경험을 한 사실만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교과수업과 수업 중 과제 수행 등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업과 관련하여 교실과 학교 안에서 노력한 내용은 그 배경, 과정, 결과가 제출하는 서류에 잘 드러날 때 의미 있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주도적인 노력에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선생님과 함께 하는 탐구활동을 한 경험이 의미 있을 수 있으며, 경험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학생 개인이 경험하고 노력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결과 위주가 아니라 과정과 함께 보여주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과목을 인터넷 강의를 통해 공부했다면 자기소개서에 쓸 수 없나요?



자기소개서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지원자가 학습하고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그러나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사항은 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 이외에는 지원자가 고등학교 재학 중 더 알고 싶어서 한 독서활동, 방송 강좌 수강 등 학습 노력의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학습 경험은 일차적으로는 학교 내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를 소홀히 한 채 혼자 공부한 기록을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연계열 학생에게도 독서가 중요한가요?



독서는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량입니다. 따라서 독서 능력이 부족하면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어느 분야든 폭넓은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한 학생을 우수하게 평가합니다. 독서와 관련된 정보를 더 얻고 싶은 학생은 웹진 「아로리」에 연재하고 있는 '서울대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은?'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각 제출서류마다 배점이 정해져 있고, 가장 높은 배점은 자기소개서 아닌가요?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류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이며 ‘종합평가’란 제출서류의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각 서류의 정해진 반영 비율이 없으며 각 서류마다 일정한 배점을 부여하여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종합하여 학생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추천서가 당락을 좌우하나요?



추천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지원자의 특성을 알고자 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지원자를 관찰한 결과나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인지한 사실 등을 추천인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천서는 필수 제출서류이므로 제출하지 않으면 불합격됩니다.



수시모집에 지원하는데 반드시 수능을 응시해야 하나요?



지역균형선발전형, 수시모집 일반전형 중 미술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지원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수능에 응시해야 합니다. 이때 서울대학교가 정한 모집단위별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을 지켜야 하므로 반드시 모집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시모집 일반전형 전 모집단위(미술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제외),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며 수능에 응시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서류평가에서 수능 점수가 좋을수록 유리한가요?



수시모집에서 수능 점수는 최저학력기준으로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서류평가, 면접, 실기평가(미술대학, 음악대학)를 통해 합격 대상자가 된 학생들은 마지막 단계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통과해야만 최종 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 등급의 충족 여부만을 확인하며 기준 등급보다 높은 수능 점수의 획득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20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자기소개서 증빙서류를 폐지하였습니다. 관련 서류 제출을 희망하시더라도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출신자 등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지원자의 경우 기준과 동일하게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서류에 한하여 기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시모집 일반전형의 면접 및 구술고사, 지역균형선발전형과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의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수시모집 일반전형의 면접 및 구술고사는 단순 정답, 단편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닌 교과 지식과 기본개념 이해를 토대로 학생의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깊이 있게 사고할 줄 알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연습은 학교 수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 문제풀이나 암기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독서, 글쓰기, 토론, 발표, 과제 수행 등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꾸준히 함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과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 정시모집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I 면접은 제출서류를 내용을 토대로 서류내용과 기본적인 학업소양을 확인하므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록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면접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학생부종합전형 정보는 「서울대학교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서울대학교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안내»,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 등 책자 형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서울대학교 입학전형 안내,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안내를 통해서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제공하는 입학전형의 모든 정보는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누리집, 웹진 「아로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로리 사용 설명서

「아로리」- 입학본부 웹진(<http://snuarori.snu.ac.kr>)

입학본부 웹진 아로리는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된 정보를 폭넓고 다양하게 전달하여 서울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작한 웹진입니다. ‘아로리’란 말의 뜻이 친구, 지인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누구나 친근하고 손쉽게 아로리를 이용하여 입학정보, 대학생활 등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학 안내	관악로 1번지	서울대학교 소개, 서울대가 추구하는 가치, 서울대학교의 인재상을 엿볼 수 있는 동영상 4편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추억의 서울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동문들의 이야기를 인터뷰 기사로 담아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입학본부 24/7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의 1년 일정이 월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입학 안내	전형안내	재학생의 고등학교 생활을 담은 학생부종합전형안내 동영상과 매년 업데이트하는 입학 전형 안내 동영상 등의 동영상 콘텐츠와 '면접 우수자가 들려주는 면접이야기', '서울대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은?'이라는 게시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릇파릇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입학한 신입생과 재학생의 인터뷰 내용으로 고등학교 생활담과 현재 대학 생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료창고	서울대학교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기출 자료와 연구보고서, 모집안내,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책자, 고교생활 가이드북, 교사연구 자료집 등 다양한 인쇄물의 원본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 생활	서울대 사용법	미래 서울대학교 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교통, 기숙사, 장학금, 도서관 이용법, 식당, 학생증 등 대학 생활에 꼭 필요한 아이템 사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대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도 간접적으로 대학생활을 미리 체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공 돋보기	전공 정보를 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인터뷰 형식으로 담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공소개 동영상을 함께 탑재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하교?	서울대학교 동아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동아리 연합회에 소속된 동아리는 물론 학과 동아리, 단과대학 동아리 등등과 서울대가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참여 마당	나도 입학사정관	서울대학교 합격생의 서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3개 모집단위 각 3명씩 총 9명의 합격자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교실 이렇게	교실 수업 개선 사례를 비롯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으며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될 만한 소재인 '학교교육과정 및 교실 수업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고등학교의 교육 활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슈이슈!	우리 교육계의 쟁점 사안에 대해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입학본부에게	입학본부에게 건의하고 싶은 내용을 교류하는 공간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및 입학전형 전반에 발전적인 의견을 공유하는 곳으로 snuarori@snu.ac.kr로 연중 상시 의견을 받아 채택된 의견이 게재됩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VERITAS LUX MEA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50동 4층 입학본부 (우)08826

전화 _ 02.880.5022 / 02.880.6974~6 팩스 _ 02.873.5021

<http://admission.snu.ac.kr> webzine 아로리 _ <http://snuarori.snu.ac.kr>